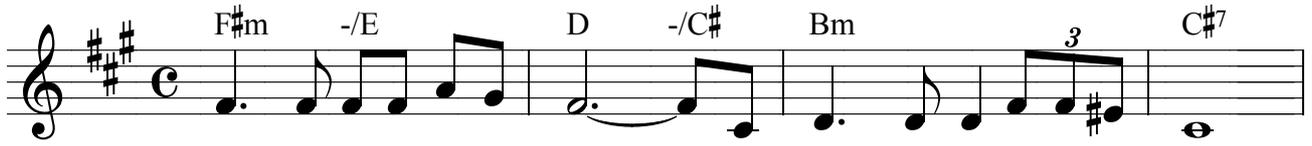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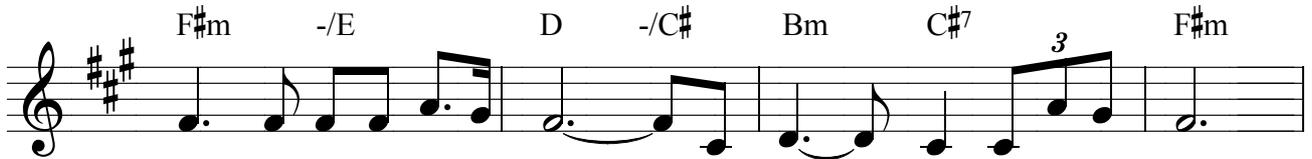


주숙일



1. 울고 있는 형제여 - 왜 찬송을 잊었는가
 2. 울고 있는 형제여 - 왜 기도를 잊었는가



어둠속의 찬송은 - 기적 - 을 부른다 오
 어둠속의 기도는 - 하늘 보좌 흔든다 오



바울과 실라가 빌립 보 감옥의 문을 찬
 네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



송으로 열었다 오 고통의 문을 찬
 로 받고 구원 받아 참 - 평화를 영



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
 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